

“프리 차이나” 미·호주·일본도 中 반정부 시위 연대

뉴욕·시카고 中 영사관 앞·하버드대 등에 수백명씩 모여
호주·일본서도 수백명 얼굴 가린채 ‘시진핑 퇴진’ 구호

중국에서 코로나19 봉쇄 장기화에 항의하는 시위가 확산하면서 미국과 호주, 일본 등 각국에서 연대 집회가 잇따르고 있다.

30일(현지시간) 시카고 트리뷴과 AP 통신 등에 따르면 전날 밤 뉴욕과 시카고의 중국 영사관 앞에 수백 명이 모여 중국 정부의 고강도 코로나19 제재와 단속, 봉쇄 장기화를 비난하는 시위를 벌였다. 시카고 중국 영사관 앞에 모인 150여 명의 시위대는 중국 정부에 항의하는 의미에서 백색 A4 용지를 들고 중국어와 영어로 ‘자유·인권·민주주의’를 외치며 시위를 벌였다고 시카고 트리뷴은 전했다.

중국인 유학생들과 중국계 젊은 직장인들이 주축이 된 이들은 중국 정부에 ‘철통 방역’을 명분으로 한 통제 해제를 촉구하면서 중국 시민들과의 연대를 표했다.

시위에 참여한 한 중국인 유학생은 “우리는 중국을 벗어나 있기 때문에 자유롭게 말할 수 있다. 그러나 중국에 있는 내 친구들은 같은 행동을 하면서 두려움에 떨어야 하고 일부는 체포되니까지 했다”고 말했다.

2018년부터 시카고 테크놀로지 기업에서 일하고 있다는 한 중국인은 “시민은 요구 사항을 표현하고 항의할 자유가

있으나 중국은 이를 허용하지 않고 있다”고 개탄했다.

트리뷴은 “시위 참가자 대부분이 마스크를 착용하고 있었다”면서 마스크는 코로나바이러스의 상징이자 중국 시위대의 침묵을 상징하고 동시에 중국 정부의 보복을 두려워하는 시위 참가자들이 얼굴을 숨기는 기능도 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중국 영사관 건물 벽에 10여 개의 보안 카메라가 설치돼있다고 부연했다.

한 시위 참가자는 “중국에서는 시위가 허용되지 않는다. 우리 중 일부는 중국에 가족이 있고, 또 일부는 언젠가 중국으로 돌아갈 계획이 있다”고 얼굴이 드러나는 데 대한 우려를 털어놓았다.

마스크를 쓰지 않은 소수 중 한 명인 리나 우 씨는 “미국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걱정이 덜하다”면서 “중국 시민들은 코로나19 방역 조치를 무조건 풀라고 요구하는 것이 아니다. 인간적인 대우를 바랄 뿐”이라고 말했다.

그는 중국 가수 잭슨 왕 등 유명 연예인들이 시민들을 지원하는 대신 중국 공산당과 협력하고 있다고 비난하면서 “시민들이 두려움 없이 행동할 수 있어야 한다. 모두 힘을 합하면 변화를 볼 수 있을



방역요원들과 충돌하는 주민들

일주해 지난달 30일(현지시간) 공개한 소셜미디어 동영상상을 캡처한 것이다.

것”이라고 기대했다.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중국을 떠나왔다는 한 남성은 “지난 10년 새 중국에서 자유가 점점 더 제한됐다. 불안 속에서 고통받고 있는 이들에게 지지를 표해달라”며 “우리는 코로나19 방역에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권위주의적 통치에 반대

중국 전역과 해외에서도 코로나19 봉쇄 장기화에 항의하는 시위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상하이의 한 주거단지에서 입구를 막는 방역요원들과 주민들이 충돌하고 있다. 이 같은 상황이 담긴 사진은 로이터가 /로이터=연합뉴스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AP통신은 같은 시간 뉴욕의 중국 영사관 앞에도 400여 명이 모여 ‘시민·종업성·자유’를 외치는 연대 시위를 벌였으며 하버드대학의 랜드마크인 존 하버드 동상 앞에도 50여 명이 모여 시진핑 퇴진 등을 요구하는 집회를 했다고 전했다.

앞서 캐나다 토론토에서도 지난 29일 30여 명이 집결해 “중국에 자유를(Free China), 시진핑 퇴진”을 외쳤다.

호주 시드니 타운홀에서는 28일 늦은 시간 200여 명이 모여 촛불 집회를 벌였다. 한 관계자는 이번 시위에 중국인 학생 50여 명이 참여해 호주에서 일어난 중국인

집회 중 규모가 가장 컸다고 전했다. 시위에 참여한 대부분의 학생은 마스크나 모자로 얼굴을 가린 채였다. 이 관계자는 호주 주재 중국 대사관 직원들이 “누가 주최자인지 찾아내려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일본 도쿄에서는 30일 현지 거주 중국인들을 비롯한 수백 명이 모습을 드러내 중국 본토 내 항의 시위에 지지를 표했다.

시위대는 일본어, 중국어, 영어로 ‘봉쇄를 중단하라, 우리는 자유를 원한다!’, ‘퇴진하라!’ 등 문구가 적힌 팻말을 들고 있었다.

이들중 중국에 남아 있는 가족들이 피해를 볼 것을 우려해 마스크와 선글라스 등으로 얼굴을 가려 신원을 숨겼다.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글로벌 연대 시위에 동참하는 활동가들도 늘어나고 있다고 로이터통신은 전했다.

클립하우스에서 1천800명의 팔로잉을 받는 스위스 활동가 루치아는 “과거에는 누군가가 보거나 듣는 것이 두려웠지만 지금은 보이고 들리길 원한다”고 말했다.

홍콩에 사는 중국인 타이거는 주위 친구들에게 시위 전단을 공유하자 소식이 SNS를 통해 급속도로 확산해 집회로 이어지는 모습을 목격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타이거는 “모든 사람이 같은 생각을 하고 있다는 사실이 드란 것”이라며 “작은 불꽃이 들불로 이어질 수 있다”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연합뉴스

“‘전쟁찬성’ 러시아인 4개월만에 57→25% ↓”

반푸틴 매체, 러 안보기관 비공개 여론조사 보도

우크라이나와의 전쟁을 계속하는 데 찬성하는 러시아인의 비율이 4개월 만에 57%에서 25%로 급감했다고 러시아어·영어 뉴스 사이트 ‘메두자’(Meduza)가 지난달 30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메두자는 러시아 안보기관인 연방경호국(FSO)이 ‘내부용’으로 통제해 결과를 공개하지 않은 여론조사 결과를 입수했다며 이렇게 보도했다.

이 매체에 따르면 FSO 여론조사에서 우크라이나와의 평화협상에 찬성하는 러시아인의 비율이 7월에는 32%에 불과했으나 11월에는 55%로 증가했다.

이러한 FSO 여론조사 결과는 모스크바 소재 독립 여론조사기관인 레바다 센터의 10월 조사에서 ‘전쟁 계속’ 지지가 27%, 평화협상 지지가 57%였던 것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메두자는 지적했다.

레바다 센터 소장인 데니스 볼코프는 올해 2월 우크라이나를 침공기로 한 크

렘린공의 결정을 대부분의 러시아인이 지지했으나 본인들이 전투에 직접 참가하려는 뜻은 전혀 없었다며 “사람들이 자신들과는 관련이 없는 일이라고 인식했으나, 이제는 위험이 커져서 사람들이(평화) 협상이 시작되기를 바라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메두자는 전쟁에 대한 러시아인들의 여론이 악화함에 따라 러시아 정부가 앞으로 여론조사 결과를 공개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전했다.

이 매체는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이 이끄는 정권과 가까운 두 명의 취재원을 인용해 크렘린공이 국영 러시아여론조사센터(VTsIOM)의 여론조사 데이터를 이제 일반에 공개하지 않을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 취재원 중 한 명은 “요즘은 온갖 결과가 다 나올 수 있어서 아예 하지 않는 쪽이 더 낫다”고 말했다.

다만 이런 여론 악화가 전쟁 계속 여부나 평화협상에 대한 러시아 정부의 입장에 직접 영향을 주지는 않을 것이라고 메두자는 전망했다.

이 매체는 러시아 국내 매체들이 전쟁이 아니라 “더 긍정적인 어젠다”에 집중하라는 지령을 크렘린공으로부터 이미 받은 상태라는 익명 취재원들의 말을 전했다.

메두자는 러시아의 해직 언론인 갈리나 팀첸코(60)가 라트비아 리가에서 2014년 설립한 뉴스 사이트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현 러시아 정부를 강하게 비판하는 매체다.

영국 일간 더타임스는 메두자 기사를 인용해 보도하면서 징집령과 예비군 동원령에 따른 여론 악화, 대규모 인명피해, 전장에서의 굶주림 후퇴 등이 있을 후에 “푸틴이 ‘특별 군사 작전’이라고 부르는 것”에 대한 러시아인들의 여론이 악화했다고 분석했다. 푸틴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후 이를 ‘전쟁’이 아니라 ‘특별 군사 작전’이라고 불렀다. /연합뉴스

“‘16강 탈락’ 환호하던 이란남성 군경 총에 사망”

29일(현지시간) 이란 대표팀이 ‘항속’ 미국에 패해 카타르 올림픽 16강 진출이 좌절되자 이에 환호하던 이란 남성이 이란 보안군(군경)이 쏜 총에 맞아 사망했다고 BBC, 가디언 등 영국 매체가 보도했다.

인권 활동가들은 27세의 남성 메흐란 사막이 이날 경기 직후 카스피해에 접한 이란 북부 도시 만다르 안잘리에서 자신의 자동차 경적을 울리며 이란 대표팀의 패전을 축하하다가 총에 맞았다고 전했다.

노르웨이에 본부를 둔 인권단체 이란

휴먼라이츠(IHR)는 “이란 대표팀이 미국에 패한 뒤 보안군이 그(사막)를 직접 겨냥해 머리를 쏘다”고 가디언에 밝혔다.

IHR에 따르면 지난 9월 22세 여성 마흐사 아미니가 히잡 사이로 머리카락이 보이는 등 복장 규정을 어겼다는 이유로 경찰에 끌려갔다가 갑자기 숨진 것을 계기로 전국적으로 확산한 반정부시위에서 이란 보안군의 손에 살해된 사람은 어린이 60명, 여성 29명을 포함해 448명에 달한다.

미국 뉴욕에 있는 인권단체 이란인권

센터(CHRI)도 사막이 이란의 패배를 축하하다 보안군에 의해 목숨을 잃었다고 발표했다.

공교롭게도 사망한 사막은 이날 미국 전에서 열린 미드필더 사이드 에저틀리히의 지인이라고 가디언은 전했다.

사막처럼 만다르 안잘리 출신인 에저틀리히는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사막과 어린 시절 유소년축구팀에서 함께 뛰었다고 소개하며 비통함을 드러냈다.

상당수 이란인은 이란 대표팀이 이란 정권을 대변한다고 보고 이번 월드컵에서 이란 대표팀에 대한 응원을 거부하고 있다. /연합뉴스

바이든 지지율 상승…대선출마 결단 영향 주목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80%에 육박하는 민주당 지지층의 지지에 힘입어 지지율이 올랐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로이터통신과 여론조사기관 입소스가 지난 28-29일(현지시간) 민주당 지지층 453명, 공화당 지지층 365명 등 성인 1천5명을 상대로 조사해 30일 발표한

결과에 따르면 바이든 대통령을 지지한다는 응답은 40%를 기록했다.

이는 일주일 전의 같은 조사보다 3%포인트 오른 수치다.

런 상층은 ‘집토끼’인 민주당 지지층의 지지도 오름세에 따른 것이다.

민주당 지지층에서는 바이든 대통령

을 지지한다는 응답이 일주일 전의 73%에서 5%포인트 오른 78%로 나타났다.

중간선거 이후 민주당 지지층이 결집하고 있다는 것으로 해석이 가능하다.

반면 공화당 지지층에선 직전 조사와 같은 9%만이 바이든 대통령을 지지했다.

2024년 대선 출마 의사를 피력하며 내년 초 최종 결단을 내리겠다고 밝힌 바이든 대통령으로서 지지층 결집 현상이 긍정적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작지 않다. /연합뉴스

www.kjdaily.com

◀

광주매일신문을 펼치면

광주·전남의 미래가 보입니다

지역의 품에서, 독자의 곁에서 늘 사랑받는 신문이 되겠습니다!!

시내 지역

지방 지사

• 중앙지국 222-8171

• 산수지국 224-4188

• 학운지국 673-6836

• 화정지국 372-9140

• 금호지국 376-7153

• 풍암지국 603-0311

• 노대지국 674-3581

• 상무지국 453-2554

• 광천지국 374-2120

• 진월지국 676-2726

• 봉선지국 673-6836

• 백운지국 673-0123

• 두암지국 266-1920

• 농성지국 362-4102

• 유동지국 222-8171

• 운암지국 529-3548

• 용봉지국 261-1503

• 신가지국 954-1420

• 양산지국 574-3745

• 하남지국 951-9954

• 운남지국 952-1687

• 오치지국 261-9461

• 문흥지국 261-9462

• 일곡지국 573-3200

• 첨단지국 971-7374

• 치평지국 371-9584

• 수완지국 955-0451

• 광산지사 944-0993

• 목포지사 061)270-8689

• 동문지사 061)278-0740

• 남목포지사 061)245-3797

• 신안지사 061)980-8300

• 순천지사 061)746-1600

• 여수지사 061)651-6433

• 나주지사 061)335-0005

• 광양지사 061)793-6800

• 구례지사 061)782-4696

• 담양지사 061)383-5566

• 곡성지사 061)362-5746

• 고흥지사 061)832-6290

• 보성지사 061)852-6644

• 화순지사 061)373-7795

• 장흥지사 061)863-6800

• 강진지사 061)432-8899

• 해남지사 061)535-5849

• 영암지사 061)473-7151

• 무안지사 061)453-3645

• 함평지사 061)322-0882

• 영광지사 061)353-5133

• 장성지사 061)394-3636

• 완도지사 061)555-0134

• 진도지사 061)542-4330

▶

광주광역시 남구 천변좌로 338번길 16(구동1-21)

▶

대표전화:062)650-2000

▶

구독문의:062)650-2022

CMYK